

지역 소식통

고창군장학재단, 장학생 추가 선발 신청·접수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장차 고창군 지역사회 발전의 역군이 될 향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유기상)이 2021년도 장학생을 추가 선발한다.

추가 선발분야는 올해 신설된 다자녀가정 장학생을 포함하여 특기(예·체·기능) 장학생, 농생명식품 인재육성장학생 등 총 3개 분야이다.

신설된 다자녀가정 장학생은 자식농사 잘 짓는 교육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원요건을 갖춘 세대대에 대하여 선발하고 세대당 150만원이 지급되며, 특기(예·체·기능) 장학생, 농생명인재육성장학생은 자격증 취득자와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에 대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12월 10일까지 고창군청 율령행정과 사람키우기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자원봉사센터, 2021년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사)고창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공례)가 2일 고창군민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2021 고창군자원봉사자대회를 열었다.

행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약식으로 28개 수상단체 표창수여 등으로만 진행됐다. 또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시간당 500원으로 환산해 1000만원의 기부금을 17단체, 개인은 28명이 참여했다.

최고 기부단체 3곳은 고창군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원광참살이요양원에 100만원, 새마을운동고창군지회는 장애인복지관에 50만원, 고창군여성자원봉사회는 장학재단에 48만원을 전달해 봉사과 기부로 1석2조의 뜻깊고 보람있는 시간이 됐다.

김공례 이사장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더 크고 새로운 내일을”

권익현 부안군수, 시정연설 5대 핵심비전 분야 성과 강조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1일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민선7기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2022년 군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권익현 군수는 시정연설에서 “민선7기 부안군정을 시작하면서 공직자에게 자발행정의 공직마인드를 요구했고 그 결과 지속가능한 부안 발전의 긍정 시그널이 군정전반에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5대 핵심비전 분야에서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협조해 주신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7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지속도시,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활력있는 경제 살고살

은 도시, 그린 뉴딜의 선도 도시, 사람 중심의 포용 도시라는 5대 핵심비전 분야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고 2022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2022년도 예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신규 매립지인 게이트웨이와 환경생태용지 178만㎡ 부지에 대해 부안군 귀속결정을 내린 성과를 예로 들면서 “오늘의 우리의 성과는 내일 세대의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라며 “다음세대가 더 크고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 수 있도록 민선7기를 일차기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캠페인 시작

고창군, 사랑의 온도탑 제막... 내년 1월 31일까지 대장정 돌입

전북 고창군이 2일 군청 광장에서 ‘희망2022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선포식과 모금 목표 달성을 위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가졌다.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라는 주제로 82일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고려해 캠페인 기간을 단축(2021년 12월1일 ~ 2022년 1월31일)하고 목표액도 전년도와 동일한 3억원의 일반성금 모금을 목표로 잡았다.

출범식은 나눔 유공자 포상, 캠페인 1호 성금 전달식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하는 ‘희망풍선 흔들기’ 순으로 진행됐다.

꾸준한 나눔과 기부로 군민들의 귀감이 된 (사)대한한돈협회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동환)와 참바다영어조합법



전북 고창군이 2일 군청 광장에서 ‘희망2022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선포식과 모금 목표 달성을 위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가졌다.

인(대표 김종학)에서 나눔유공 표창을 받았다.

각각 개인, 단체, 시설, 기업을 대표하는 1호기부자로 대신면에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조충용씨가 20만원을,

500여명의 회원들과 3500시간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한 고창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를 통해 100만원의 환산금을 기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12월 정읍 인물 태인의병 최익현 · 임병찬, 농약 김도삼 선정

정읍시는 12월의 역사 인물로 태인 의병의 최익현, 임병찬과 정읍농약의 김도삼을 선정했다.

동학·의병·호국 분야에서 선정된 최익현(1833-1906)과 임병찬(1851-1916)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1906년 4월 13일(음력) 무성사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전주 진위대가 진압하려 오자 면암 최익현은 제자 임병찬에게 동포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해산

을 명령했다. 이후 최익현과 임병찬은 29일 진위대에 붙잡혀 대마도에 유배되고 최익현은 단식 끝에 11월 17일 순국했다.

1907년 대마도에서 돌아온 임병찬은 1913년 고종의 밀조로 전라도 독립의 군부 순무대장군에 임명됐다. 1914년 2월 재기를 결심하고 거사 계획을 논의하다 발각되어 6월 3일 붙잡혀 거문도에 유배되어 구금 생활을 하다 1916년 5월 13일 운명했다.

문화예술·기타분야에 선정된 김도

삼은 1876년 9월 정읍시 감곡면 유정리에서 태어났다. 정읍농약의 중시조로 일컬어지며 김도삼은 학식이 있는 선비였으나 천성적으로 신명을 좋아해 농약에 뜻을 두고 박민풍으로부터 농약을 배워 유명한 상쇠가 됐다.

당시 전승되던 호남 우도농약 판굿을 토대로 여러 진법(陣法)을 편성해 판굿의 구성을 다채롭게 했으며, 호남 우도농약에 남아 있는 진풍이 가운데 한자로 명명된 진풍이를 편성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사랑의 온도계(회장 김호중)는 지난 2일 부안군청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새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백만원을 부안군에 기탁하였다.

“지역사회 발전 위해 함께”

부안 사랑의 온도계, 이웃돕기 성금 기탁

부안 사랑의 온도계(회장 김호중)는 지난 2일 부안군청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새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백만원을 부안군에 기탁하였다.

부안 사랑의 온도계는 2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적 모임단체로,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2008년 설립되어 방한복 100벌 기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87명 5,300여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매년 연말 지원하고 있는 단체이다.

김호중 회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려운 시기, 이웃을 생각하고 지역사회에 베풀어 온기를 나누어 주신 사랑의 온도계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기탁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으로 사랑의 온도가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칠보면 ‘지중화 사업’ 준공

정읍시 칠보면 소재지 일원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가로환경이 한층 더 산뜻해졌다.

시는 칠보면 터미널을 중심으로 마을 경관을 해치는 전신주와 배전선, 통신선 등을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과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도로 정비사업을 마치고 2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 시의원 관계 기관장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칠보면은 무성사원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산이 산재한 지역으로 전신주와 통신주 등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이 마을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약 천후 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불편이 지속 제기돼 온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8개월간에 걸쳐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전선과 통행 불편

을 초래하는 전봇대를 비롯해 하수도와 도로 시설물 등을 일체 정비했다.

이번 정비사업은 칠보면 보건지소부터 칠보터미널 방면으로 1.1km에 이르는 구간에 총사업비 47억이 투입됐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전과 KT, 공영통신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 회를 통해 일정 조율과 공중 논의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칠보면 소재지에 쾌적한 경관을 제공함을 물론, 칠보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우수관 정비사업으로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공사 기간 중 불편함을 참고 이해해 주신 주변 상가와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다”며 “이번 사업을 발판 삼아 코로나19로 침체한 상권이 다시금 활기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